

LG전자, 태양전지 국제시험소 지정

독일 TuV Rheinland 인증 획득 ... 모듈 내구성·안전성 분석기술 확보

LG전자는 독일의 규격 인증기관인 TuV Rheinland가 인증한 태양전지 모듈 공인시험소로 지정됐다.

세계적으로 태양전지 인증시장의 70%를 점유하고 있는 TuV Rheinland가 태양전지모듈 공인시험소를 인증한 것은 LG전자가 처음이다.

LG전자는 공인시험소로 지정됨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태양전지 모듈 내구성과 안전성 분석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.

또 자체적으로 제품인증 시험이 가능해지면 연간 30여억원의 인증비용을 아끼고 인증기간도 6개월 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.

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 백우현 사장은 “공인시험소 지정에 따라 제품신뢰성 향상, 개발기간 단축, 비용절감 효과 등으로 유럽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”고 전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10/28>